

보령시 생활인구 '전국 4위·충남 1위' 차지했다

보령시가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89개소 중 4위, 충남도 내 1위를 차지하며 총 205만 명을 돌파했다.

보령시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라 7월 61만 5,498명, 8월 80만 5,543명, 9월 62만 9,429명으로 하계 성수기 생활인구가 대폭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도시로서 보령머드축제, 글로벌 인기와 대전해수욕장, 보령빙풍욕장 등 프리미엄 관광지원이 피서 수요를 끌어모은 결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체류인구 재방문율 25.8%, 평균 체류일수 2.5일, 체류시간 12.6시간, 1인당 카드 사용액 11만 1,000원으로 고품질 관광 수요를 입증했다.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 등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월 1회 이상 방문자를 의미하는 생활인구 핵심 지표다. 시는 연간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 개척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벨트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보령 위케이션 특화센터 구축 등 선도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대덕 3·1절 앞두고 독립 유공자 유족 예우 방문

대전 대덕구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지역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을 직접 방문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대덕구는 독립유공자 후손 정한백 씨의 자택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번 방문은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선열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한백 씨의 선친 故 정두은 자는는 일제강점기 경남 합천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다 체포돼 징역 10월, 징형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199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독립유공자 유족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덕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2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덕구는 매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명절, 광복절, 3.1절에 위문품을 지원하는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덕구는 대덕물빛축제가 최근 발표된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문화·예술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재봉 기자

대전 만장일치 제2대 회장도시 재선출

대전시, 고위급 대표자 회의에서 재선임...부회장은 말라가 과학동맹 굳건



대전시는 25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과 도시연합(GIN) 회원 도시들의 만장일치 제2대 회장도시로 재선출됐다.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GIN 고위급 대표자 회의'에서 대전, 말라가, 도르트문트, 퀘벡주, 시애틀, 몽고메리 카운티 등 6개 회원 대표는 대전의 리더십을 재선임하고, GINI 상설 사무국을 대전에 두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대전시는 창립을 주도한 데 이어, 향후 2년간 조직의 운영과 확장을 책임지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는 고위급 회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위한 실무 행사들이 병행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같은 날 열린 'GINI R&D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지역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반도체, 바이오, 양자 분야의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했다. '충남대 AI 심포지엄'에서는 충남대, KAIST, 프라운호퍼 연구소, 이바도(IVADO)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실을 다졌다.

대전시는 이번 재선출을 계기로 회원 지역 간 경제 과학 교류 프로젝

트를 차분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회원 도시들의 신뢰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대전이 중심이 되어 GINI를 단순한 선언적 기구가 아닌, 회원 지역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글로벌 과학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부회장으로 당선된 말라가의 알리시아 이스퀴에르도 부시장은 "부회장으로서는 말라가는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잇는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GINI가 대륙을 넘어선 세계 최고의 혁신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 확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양 전제 7일 임시보호 ▲동물위탁관리업체 재능기부 임시돌봄 ▲돌봄 품앗이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김혜정 소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기회를 높이고 시민의 입양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봉 기자

문화유산 디지털 활용기반 넓힌다

세종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지역 인재양성 기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와 손잡고 지역 문화유산의 디지털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세종시는 26일 홍익대(세종캠퍼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홍익대 조형대학이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 개발·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홍익대(세종캠퍼스)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통한 문화유산의 가상공간 재현과 다양한 디지털 체험 콘텐츠 개발에 협력한다. 개발된 콘텐츠는 향후 조성되는 세종시립박물관, 장육진생가기념관의 전시 공간에 접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세종시는 홍익대(세종캠퍼스)가 문화유산을 활용한 참신한 디지털콘텐츠 개발·구축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제공과 과제

발굴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홍익대(세종캠퍼스)는 조형대학의 우수인력과 연구기반시설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자체 성장 동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장은 "세종시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확장하는 작업은 미래 문화유산의 핵심 가치"라며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첨단 문화유산 서비스 구축과 더불어 홍익대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동 홍익대 조형대학장은 "지역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디지털콘텐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지역 기여 모델"이라며,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세종시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봉 기자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강화한다



충청남도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와 자살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개입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기반의 집중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26일 도·시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살예방사업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도는 올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기존 예방 중심 사업을 정비하고, 위기 개입·관리 중심으로 관련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살시도자·자살유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 연계와 사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의료기관은 신체 상태가 안정된 이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사례관리 동의를 받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에 즉시 통보한다.

센터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 등록·사례관리를 추진하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료기관, 도·시군, 광역·기초센터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협의체를 통해 연계 실적과 현장 의견을 공유한다.

경찰·소방과도 고위험군 발생 시 즉시 통보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출동 요청 시 위기개입 후 24시간 이내 재접촉·등록까지 이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024년 34.8명으로 전국 평균 29.1명보다 5.7명 높은 수준이다. 충남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충북도 드론·무인기 기업 투자유치 본격화

드론쇼코리아에서 충북 드론·UAM센터 공동 홍보관 운영, 유망기업 유치 집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2026 드론쇼코리아'에 참가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청주대학교 소속 '충북 드론·UAM센터'와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고, 드론·무인기 산업과 연계한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입지 여건과 산업 기반을 소개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에어로폴리스만의 핵심 강점인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한 입지 ▲전국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 ▲인근 12개 대학 30개 전문학과에서 매년 1,157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전문 인력 기반 등 드론·무인기 기업의 성장 여건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전시 기간 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드론·무인기 제조 및 연구 기업을 대상으

로 사전 예약 기업과 현장 방문 기업에 대해 1:1 투자 상담을 진행했으며, 후속 관리 대상 기업을 선별해 전시회 이후에도 기업 이전 및 투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상담 기업이 실제 입주와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단계 전환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요 타깃 업종·기업에 대해서는 입지와 지원제도를 연계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안해 실질적인 분양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드론쇼코리아는 드론·무인기 산업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가 드론·무인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